

본문이 이끄는 삶을 위한 설교의 변혁적 기제 연구: 성령의 언어 행위와 ECHO 설교 모델을 중심으로

권 구*

국문 초록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는 단순한 인구학적 감소를 넘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이끌지 못하는 설교의 효능감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가 강단의 선포를 넘어 청중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본문이 이끄는 삶(Text-driven Life)으로 나아가는 변혁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성령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며, 설교자는 본문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는 에토스(Ethos)를 갖춘 자로서 인격적 전유를 통해 청중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둘째, 설교의 변혁적 동력은 성령의 언어 행위(Speech Act)에 있다. 본문 안에 내재된 의미수반발화의 힘(Illocutionary force)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청중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결과(Perlocutionary effect)로 수행되며, 이 과정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증언하는 존재론적 변형(μεταμορφούμεθα)에 이르게 한다. 셋째, 이 신학적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원리화와 평행화 작업, 그리고 성령의 수행력이 응축된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Take-home Truth)’가 청중의 가슴에 심겨져야 한다.

- 논문 접수일: 2026년 3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4월 23일

- 논문 심사일: 2026년 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4월 28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겸임교수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Exegesis(주해) – Christocentric Principle(그리스도 중심 원리) – Homiletical Appropriation(설교적 전유) – One-sentence Truth(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로 구성된 ‘ECHO 설교’ 모델을 실천적 전략으로 제안한다. 한국교회의 재활성화는 프로그램의 혁신이 아니라 본문의 생명력이 설교자의 에토스를 통과하여 청중의 일상 언어와 습관으로 육화되는 변혁적 설교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주제어: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이끄는 삶, 변혁적 기제, 성령의 언어 행위,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 ECHO 설교 모델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한국교회는 포스트 팬데믹과 포스트모던이라는 이중적 도전 아래 심각한 재활성화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¹⁾ 단순한 양적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서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 앞에서 무력감을 고백한다. 말씀이 삶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침체의 본질적 원인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는 성경 본문의 구조와

1) 교회 재활성화는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야이다. 필자는 한국교회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교회 재활성화’ 개념을 정리하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권규, “교회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다시 살아나는 교회,” 『복음과 실천신학』 74 (2025): 215–249. (<https://doi.org/10.25309/kept.2025.02.20.215>)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해왔다.²⁾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주석적(Exegetical), 신학적(Theological), 설교적(Homiletical) 단계에 집중해 온 나머지, 정작 설교 이후 청중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혁적 단계(Transformational Stage)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Timothy S. Warren은 설교의 과정을 주석적, 신학적, 설교적, 변혁적 단계로 구분하면서, 변혁적, 계시적 단계야말로 설교 과정의 완성임을 강조했다.³⁾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의 진리를 청중의 삶에 적실

-
- 2)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내용(substance), 본문의 구조(structure) 및 본문의 무드(spirit)로 구성되어 있다. Steven W. Smith,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B & H Academic, 2015), 19.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문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들을 소통하기 위한 설교적 작업은 본문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본문의 중심 주제가 그대로 설교의 중심 주제로 나타나야 한다. 본문의 구조는 본문의 구조적 수준에도 성경적 의미가 있음을 말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 되었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사실을 지지한다면,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의 구조도 성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영감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기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 구조가 곧 설교의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Paige Patterson, Matthew McKellar, Steven W Smith, David Lewis Allen, *A Pastor's Guide to Text-Driven Preaching* (Seminary Hill Press, 2016), 10.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 논문들을 참조하라. 권구, “An Analysis of Yonggi Cho’s Narrative Sermons Through the Lens of Text-Driven Preaching,” 『영산신학저널』 65 (2023): 151-193. (10.18804/jyt.2023.09.65.151); 권호, “본문이 이끄는 시편 설교법: ‘SEIRA’ 시편 설교 작성법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제 39권 2호 (2021.12): 441-478;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성경해석학: 신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 침례교 설교로의 적용,” 『복음과 실천』 제58집 (2016년 가을): 379-408; 이재형, “본문이 이끄는 설교: 사사기 16:4-22에 기록된 삼손의 부정적 인물묘사를 통해 구약 내러티브 설교하기,” 『복음과 실천신학』 제70권 (2024): 42-78. (<https://doi.org/10.25309/kept.2024.02.20.042>);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제52권 (2019): 38-70. (<https://doi.org/10.25309/kept.2019.8.15.038>).
- 3) Timothy S.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Bibliotheca Sacra* 148 (October-December 1991): 481.

하게 연결하는 것이 설교학에서 “가장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요구 (the major unaddressed requirement)”임을 지적했다.⁴⁾ 권호가 지적하듯 변혁적 과정은 설교의 결과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단계인데, 설교 작성 과정 자체에서는 간과되기 쉽다.⁵⁾ 박현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존 설교학이 주해와 적용은 다루되, 설교의 전 단계를 주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변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⁶⁾

왜 그럴까? 변혁적 과정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삶의 변화의 주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으며 그 역사는 학문적 언어로 수량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영역을 외면할 수는 없다.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인식론적 이해를 넘어 삶과 공동체, 사회와 문화의 변혁이기 때문이다.⁷⁾ 이 영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회피하는 것은 설교학의 본질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점에서 Haddon W. Robinson은 강해설교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역이자, 성령께서 그 개념을 설교자와 회중의 삶에 적용하시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삶의 변혁을 암시했다.⁸⁾ Greg Heisler에 따르면 설교란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청중의 기억 속에 내재화시키고 그들의 중심에 각인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성령의 사역이다.⁹⁾ Jerry Vines 역시 성령의 능력이 청중의 삶 위에 실제로 역사하도록 본문을 열어 설명하는 것을 설교의 본질로 보았으며, Richard Mayhue, John Stott, Bryan Chapell 등은 본문의 의도가 청중의 삶을

4) Timothy S. Warren, “sA Paradigm for Preaching,” 467.

5)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신학정론』 제 37권 1호 (2019.06): 449.

6)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7), 33.

7)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48.

8) 해돈 W. 로빈슨,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박영호 역 (서울: CLC, 2007), 23.

9) Greg Heisler,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122.

변화시키는 적용의 단계로 이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¹⁰⁾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어떤 변혁적 기제를 통해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에 본 연구는 설교의 목적이 본문 해설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인적 영적 생명력을 증진과 청중의 존재적 변화에 있음을 전제한다. 특히 Peter Adam이 강조한 본문의 신적 권위와 설교자의 인격적 에토스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본문의 의도(Illocutionary force)가 성령의 언어 행위(Speech Act)를 통해 청중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Perlocutionary effect)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변혁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 과정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Exegesis(주해), Christocentric Principle(그리스도 중심 원리), Homiletical Appropriation(설교적 전유), One-sentence Truth(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ECHO 설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도의 일상을 말씀 중심으로 재편하는 ‘본문이 이끄는 삶’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펴는 글

1.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신학적 기초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소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본문의 구조와 감성이 설교의 형태와 목적을 결정하게 하는

10) Jerry Vines, Jim Shaddix, *Power in the Pulpit: How to Prepare and Deliver Expository Sermon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5), 47; 해돈 W. 로빈슨,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37-38.

것이다. 설교자의 주관이나 시대적 요구가 텍스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설교자와 청중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을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먼저 본문에 나타난 주동사와 분사를 구분해야 한다. 주동사가 본문의 대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문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지를 나누는 기존 설교 관행과 근본적으로 다르다.¹¹⁾ 시편을 읽을 때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느낌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본문과 잠언의 지혜 본문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본문의 감성을 살려낼 때 청중은 말씀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¹²⁾ 임도균이 지적하듯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에 충실한 철학만이 아니라 본문의 메시지와 의사소통의 임팩트까지 함께 전달하려 한다.¹³⁾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설교 방식을 뒷받침하는 설교자의 정체성과 설교의 궁극적 목적을 살펴본다.

1) 본문의 권위와 설교자의 정체성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성경 텍스트가 가진 신적 권위에 대한 설교자의 근본적인 인식과 확신에서 시작된다. Peter Adam은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의 직분이나 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신학적 기둥 위에서 있다고 논증한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God has spoken)”라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임을 전제한다. 둘째는 “그분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다(It is written)”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으며 이 기록된

11) Ned Lee Mathews, David Lewis Allen, Daniel L. Akin, *Text-Driven Preaching &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B & H Academic, 2010).

12) Robby Gallaty, Steven Smith, *Preaching for the Rest of Us: Essentials for Text-Driven Preaching* (Nashville, Tennessee: B&H Academic, 2018), 32.

13)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성경해석학,” 『복음과 실천』 제58집, (2016. 가을): 387.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권위의 실체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Preach the Word)”라는 기동이다.¹⁴⁾ 설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현대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친히 제정하신 통로이다.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탁월한 역량이나 수사학적 기술에 있지 않다. 설교의 권위는 오직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Adam은 이러한 권위의 역사가 말씀 그 자체이자 성육신하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점에 달했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¹⁵⁾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세상 학문을 전하는 강연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본문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신령한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그런데 신적 권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권위가 청중에게 변혁적으로 전달되려면 설교자의 인격적 권위, 곧 에토스(Ethos)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ristotle은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보다 앞서서 가장 강력한 설득의 수단으로 에토스를 제시했다.¹⁶⁾ Augustine 역시 『기독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이 수사학적 전통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설교자의 인격이 웅변보다 청중을 설득하는 데 더 결정적임을 역설했다.¹⁷⁾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서 에토스는 어떻게 형

14) Peter Adam, *Speaking God's Words: A Practical Theology of Preaching*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15–17.

15) Peter Adam, *Speaking God's Words*, 17.

16) Ned Lee Mathews, David Lewis Allen, Daniel L. Akin, *Text-Driven Preaching*, 216–217. Aristotle의 에토스 개념에 대해서는 Rhetoric I.2를 참조하라. Augustine은 『기독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에서 키케로의 수사학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4권 결론부에서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웅변보다 청중을 설득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에토스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였다.

17)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trans. D. W. Robertson Jr.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8).

성되는가? 설교자가 본문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는 ‘첫 번째 청중’이 될 때다. 오현철이 강조하듯 설교자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아래 서 있을 때 청중은 설교자의 인격 속에 육화된 진리를 보며 변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¹⁸⁾ 설교자의 정체성은 결국 입술로 선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이우제 Lloyd-Jones의 논지를 빌려 설교자의 권위가 수사학적 기술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한다.¹⁹⁾ 설교자는 본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되 그 본문이 청중의 심령을 찌르는 살아있는 검이 되도록(히 4:12)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²⁰⁾ 성령으로 영감된 본문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확신, 이것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토대다. 신적 권위 위에 서되 그 권위에 먼저 굴복하는 에토스, 이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본문의 생명력이 청중의 삶으로 전이되는 변혁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2)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정의와 목적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는 성경 본문이 설교의 모든 요소를 결정하게 하는 성경적 설교 양식이다. David L. Allen은 이를 “성경 본문의 실질적인 내용(Substance), 구조(Structure), 그리고 어조(Spirit)를 그대로 전달하여 본문의 의도와 설교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²¹⁾ 설교자가 본문을 자신의 논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가진 고유한 생명력이 설교를 이끌어

18) 오현철, “설교자의 정체성과 성령의 역할,” 『복음과 실천신학』 41 (2016): 163.

19)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복음과 실천』 (2006 봄호): 19-21.

20)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61.

21) Ned Lee Mathews, David Lewis Allen, Daniel L. Akin, *Text-Driven Preaching*, 7-8.

가게 함으로써 본문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설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실천적 목적은 청중의 전인적 변화와 생명력의 회복이다. 임도균은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력 증진으로 정의한다.²²⁾ 그는 설교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청중에게 새로운 삶(영혼 구원)과 풍성한 삶(영적 성숙)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류응렬 역시 설교를 “성령님께서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청중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설교의 종착역이 회중의 삶을 명시한다.²⁴⁾

박현신은 이러한 변화의 신학적 깊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형(μεταμορφούμεθα)으로 심화시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근거로 그는 설교의 목표가 단순한 행위 수정을 넘어 성령의 조명 아래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존재 자체가 바뀌는 메타모르포시스에 있다고 주장한다.²⁵⁾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혁적 단계는 바로 이 지점이다. 본문의 내용과 구조와 무드가 청중의 내면에 투영되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청중의 삶이 본문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Philip Brooks는 설교를 “진리가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정의했다.²⁶⁾ 본문의 권위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그 생명력을 본문의 구조

22)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고찰과 제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력 증진,” 『복음과 실천신학』 71 (2024). <https://doi.org/10.25309/kept.2024.05.15.123>.

23)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고찰과 제안,” 146-147.

24) 류응렬, “청중을 변화시키는 설교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17 (2008 여름호): 111.

25) 박현신, “설교의 목적으로서 청중의 변화(μεταμορφούμεθα)를 위한 성경적 원리: 고후 3:18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7 (2018): 122-136. <https://doi.org/10.25309/kept.2018.5.15.115>

26) Philip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New York: Dutton and Company, 1878), 5-34.

와 무드에 담겨 선포할 때 그 진리는 설교자의 에토스를 통과하여 청중의 삶으로 육화된다. 그때 비로소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이 이끄는 삶이라는 변혁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

2. 변혁적 단계의 메커니즘 분석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지향하는 최종 단계는 설교자의 선포가 청중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혁적 단계이다. 단순한 윤리적 결단이나 심리적 위로가 아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청중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 장에서는 그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 성령의 언어 행위와 효력: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의 실제화

설교가 어떻게 청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김덕현은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그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모두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언어 행위임을 전제한다.²⁷⁾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어 행위의 세 가지 층위인 발화행위(Locution), 의미 수반 발화행위(Illocution), 효과 수반 발화행위(Perlocution) 사이의 역동적 관계이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가 청중의 삶에 현실화가 되려면 설교자가 본문의 수행력에 반응하는 성경적 전유(Biblical Appropriation)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²⁸⁾ 성경적 전유란 설교자가 본문의 보편적 의미를 추출하여 청중에게 대입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27)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36 (2015): 89-90.

28)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61-65.

‘말씀-사건(Word-Deed)’이 작동하는 본문 세계에 설교자와 청중이 직접 참여하여 그 세계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인격적 소통의 과정이다. 설교자가 본문의 수행력에 먼저 응답하고 체화함으로써 회중을 그 변환된 세계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전유의 핵심이다.

첫째, 성령은 성경 텍스트 안에서 작동하는 성경적 의미수반발화의 힘(Biblical illocutionary forces)의 주체이다.²⁹⁾ 본문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청중을 향해 명령하고, 약속하고, 위로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의도와 힘을 내재하고 있다. 김대혁에 따르면 성경적 전유는 설교자가 이 본문의 역동적 세계에 먼저 발을 내딛어 저자가 의도한 바를 알고 경험하는 통합적 과정을 요구한다.³⁰⁾ 설교자는 본문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단을 통해 드러나도록 본문의 의도를 가감 없이 펼쳐야 한다.

둘째, 성령은 본문의 의도가 청중의 심령에서 실제 변화로 나타나는 설교적 효과수반발화 효과(Homiletical perlocutionary effect)를 일으키는 수행자(Enabler)이다.³¹⁾ 김덕현은 빌레몬서 1장 21절을 예로 든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의 텍스트 속에 담긴 성령의 의도가 수신자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구체적 사건으로 치환되는 것이다.³²⁾ 설교는 성경의 역사와 신학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만 않는다. 성령을 통해 본문의 의도가 청중의 삶에서 ‘의미의 사건(event of meaning)’이 되는 현장이다.

29)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116.

30)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61-62.

31)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116-117.

32)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108-112.

셋째, 성령의 언어 행위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인격적 결단과 결합된다. 성령은 본문의 언어적 힘으로 청중의 내면적 저항을 해체하고 기록된 말씀의 의도가 청중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³³⁾ 이 과정은 설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은 본문의 권위 아래 해석자 자신을 노출하여 왜곡된 이해를 교정받는 자기 부정의 해석학적 실천이다.³⁴⁾ 따라서 ‘본문이 이끄는 삶’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고군분투가 아니다. 성령의 언어 행위에 사로잡혀 본문의 의도가 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성령 의존적 삶의 양식이다.

2)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형(μεταμορφούμεθα): ‘본문이 이끄는 삶’의 존재론적 전이

설교의 변혁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박현신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용된 변형(μεταμορφούμεθα)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는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청중이 선포되는 본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메타모르포시스에 있다.³⁵⁾ 그런데 이 존재론적 변형이 청중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실제 사건이 되려면 본문과 현시대를 잇는 해석학적 다리 놓기 작업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본문 저자의 의도에 근거하여 설교자로 하여금 각 청중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적실한 변혁적 적용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본문의 진리가 청중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 되게 하신다.³⁶⁾

33)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116-117.

34)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62-63.

35) 박현신, “설교의 목적으로서 청중의 변화(μεταμορφο?μεθα)를 위한 성경적 원리,” 134-135.

Sunukjian은 이를 위해 본문의 단락 아웃라인이 진리 아웃라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본문의 중심 아이디어가 시대를 초월한 신학적 원리로 작동할 때 청중의 구체적인 삶에 적실한 적용의 토대를 마련된다.³⁷⁾ 권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교자가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로 다가오게 하는 연관 작업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며³⁸⁾ 원리화 과정과 평행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이 작업이 설교자의 조명된 소통(illuminated communication)으로 이어질 때 본문의 의도는 청중의 삶의 자리와 긴밀히 맞닿게 된다.⁴⁰⁾

변형의 완성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John A. Broadus는 “성경적 적용은 필연적인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이라고 정의했으며,⁴¹⁾ Jay E. Adams는 적용이란 “청중을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적절한 과정”으로,⁴²⁾ Wayne McDill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호소함으로써 변화된 행동을 지향하는 의사 전달적 메시지”로 보았다.⁴³⁾ 권호는 적용을 단순히 설교 끝에 덧붙이는 제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인간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으로 정의한다.⁴⁴⁾

36)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408.

37) Donald R. Sunukju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42–64.

38)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신학정론』 제37권 1호 (2019.06): 437–438.

39)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453–466.

40)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409.

41)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New York: Happer & Row Publishers, 1979), 166–167.

42) Jay E. Adams, *Truth Applied: Application in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7.

43) Wayne McDill, *The 12 Essential Skills for Great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187.

44) 권호,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신학정론』 제37권 2호 (2019.12): 424.

본문과 현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 적용으로 제시할 때 청중은 비로소 본문에 기반한 삶으로 나아간다. 본문의 원리가 청중의 삶의 자리와 평행을 이룰 때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청중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본문의 힘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론적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⁴⁵⁾

3)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성 형성

변혁적 단계가 일회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운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설교 현장에서의 경험적 역동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우제는 Lloyd-Jone의 기름 부으심(Uncion)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기름 부으심이란 설교자와 청중에게 임하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다. 이것이 설교자의 지성적 준비를 살아 움직이는 선포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 요소이다.⁴⁶⁾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설교는 청중의 정서와 의지를 장악하는 영적 압도의 사건이 된다. 청중은 이 과정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성적 동의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본문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경험적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⁴⁷⁾

그러나 이 단회적 사건은 성도의 일상적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허도화는 초대교회의 설교가 성령의 활동을 통해 청중의 영적 삶을 인도하는 영성 훈련의 성격을 띠었음을 밝힌다.⁴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는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었다. 성령 임재의 기도와 함께 성령의 현상학적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였다.

45) 권호,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425.

46)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38.

47)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61.

48) 허도화, “성경적 영성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초대교회의 설교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제38권 1호 (2016): 106-108.

이 경험이 쌓일 때 본문의 가치관이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히는 영적 습관이 형성된다.⁴⁹⁾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움은 즉각적인 삶의 반응으로 이어졌다(눅 24:13-35).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청중의 심령에 바로 이런 거룩한 파고를 일으킨다. 이 파고가 일회적 감동에 그치지 않고 성도의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적 습관으로 형성될 때 변혁적 단계는 비로소 완성되며 본문이 이끄는 삶은 현실이 된다.

3. 본문이 이끄는 삶(Text-Driven Life)을 위한 실제적 전략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신학적 메커니즘이 성령의 언어 행위를 통해 청중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것이라면 설교자는 이를 돕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청중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문의 권위와 삶의 적실성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본다.

1)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적용과 연관 기법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마주한다. 본문의 고대 세계와 현대 청중의 삶 사이에 놓인 거대한 해석학적 간격(Hermeneutical Gap)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청중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주의와 모든 보편적 거대 담론을 해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⁵⁰⁾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교한 메시지라도 자신의 삶과 연결

49) 허도화, “성경적 영성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137-138.

50) 박현신,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살아있는 강해적 교리설교,” 『복음과 실천 신학』 제30권 (2014): 171.

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이들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도전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강하게 호소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 핵심 도구가 원리화(Principalizing)와 평행화(Parallelizing) 기법이다.

첫째, 원리화는 본문의 특수성 속에 담긴 보편적 신학 진리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Warren은 설교자가 주석적 과정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한 이후, 반드시 신학적 과정을 거쳐 그 의미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신학 원리로 정제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그는 이 신학적 산물이 “본문이 가르치는 시대를 초월한 신학적 진리를 원래 상황과 현대의 대응하는 상황 모두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 설교자는 시대적, 문화적으로 제한된 원리를 보편 진리인 양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한다.⁵¹⁾ 권호는 이 통찰을 한국 설교학 맥락에서 발전시켜, 설교자가 본문을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기술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²⁾ 김재선이 말한 기능적 적실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청중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날에도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으로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다.⁵³⁾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법을 설교할 때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의식에만 머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 속에 담긴 대속의 원리,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길을 추출해야 한다. Warren이 지적하듯 구약의 제사 제도는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전개되는 구속의 진리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그 진리는 특수한 역사적 사례로부터 그것이 전달하는 보편

51)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477. Warren은 신학적 산물을 “should express the timeless theological truth that the passage teaches, in a way that would be applicable to the original situation as well as to the contemporary corresponding situations”로 정의한다.

52)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453-457.

53) 김재선, “적실성 있는 설교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 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제33권 (2014): 34-35.

적 신학 원리로 확장되어야 한다.⁵⁴⁾ 이 원리가 선명해질 때 비로소 청중은 본문이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째, 평행화(Parallelizing Process)는 추출된 원리를 청중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일치시키는 상황화 작업이다. Warren은 청중 대응(audience-reference)과 청중 특성(audience-trait) 분석을 제시하며, 성경적 상황과 현대적 상황의 요소들이 맞아떨어질 때 추출된 원리가 재적용될 수 있다고 논증한다.⁵⁵⁾ 권호는 이를 인물 대상화와 상황 대상화라는 실제적인 기법으로 발전시켰다.⁵⁶⁾ 인물 대상화는 본문 속 인물의 갈등, 감정, 영적 상태를 오늘날 청중의 처지와 형편에 평행하게 놓는 것이다. 갈대 상자에 아들을 띄워 보내야 했던 요게벳의 절박함을 생각해 보라. 자녀의 장래를 알 수 없어 자신의 통제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대 부모의 심정과 그대로 겹쳐진다.⁵⁷⁾ 상황 대상화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영적, 사회적 위기를 청중의 현대적 위기와 연결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의 상실 경험을 오늘날 경제적 위기나 공동체 붕괴를 겪는 성도들의 상황과 평행화할 때 본문의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으로 말을 걸어오게 된다.

셋째, 연관 작업은 반드시 구체적 적용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Warren이 강조하듯 설교는 본질적으로 적용된 진리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본래 적용된 형태로 주어졌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재적용되어야 한다.⁵⁸⁾ 김재선 역시 설교의 목

54)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477.

55)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483-484.

56)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457-462.

57) 권호,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463-465.

58)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482. Warren은 Adams를 인용하여 “Preaching is truth applied ... the truth of God revealed in Scripture came in an applied form and should be reapplied to the same sort of people for the same purposes for which it was originally given”이라고 논증한다.

적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존재의 변화에 있음을 지적하며, 적용이 청중의 삶에 타당한 실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⁹⁾ 원리화와 평행화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된 적용은 포스트모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해석학적 닻이 된다.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의 역동성을 전인적으로 경험할 때 적용은 비로소 청중의 일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강력한 견인력을 갖게 된다.

2) 변혁의 핵심 동력: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Take-home Truth)와 삶의 체화

설교가 끝난 후 청중의 가슴에 남는 것은 긴 설교의 내용이 아니다. 청중의 가슴에 응축되어 남는 단 한 문장,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다. 이 한 문장은 설교를 요약한 수사학적 산물이 아니다. 성령의 언어 행위가 청중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효과수반발화를 일으키도록 가장 예리하게 정제된 영적 문장이다.

성경 본문 안에는 성령의 신적 의도와 수행적 힘이 내재되어 있다.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는 이 거대한 본문의 수행력을 청중이 일상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다. Sunukjian은 설교자가 단일한 핵심 문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청중은 설교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자기 나름의 진리를 만들거나 아무런 각인 없이 예배당을 떠나게 된다고 경고하며, 설교의 중심 사상이 청중의 일상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청중의 삶을 지탱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고 역설한다.⁶⁰⁾ 그는 또한 효과적인 설교는 본문의 고대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청중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할지를 단 하나의 선명한 문장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59) 김재선, “적실성 있는 설교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 방안,” 34.

60)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66–67.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¹⁾ 이 한 문장에 담긴 성령의 수행력이 청중의 변혁을 이끄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인지적 명확성을 통한 세계관의 재구성이다. Sunukjian이 강조하듯 설교의 명확성은 곧 권위와 직결되며, 이는 청중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해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⁶²⁾ 한 문장의 진리가 선포될 때 청중은 자신이 타협해 온 영적 실상을 자각하고 인지적 불협화음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공”이라는 세속적 전제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성령의 수행적 발화와 부딪힐 때 청중은 깊은 갈등을 경험하며 기존 가치관의 모순을 직면한다. 이 충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원리를 새롭게 세우는 결단으로 이어진다.

둘째, 일상에서 지속되는 영적 정착지의 역할이다. 성령의 효과수반 발화는 예매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청중이 품고 돌아간 그 한 문장을 매개로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유혹이나 고난 앞에서 가슴속에 새겨진 이 진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즉각 소환되어 본문의 의도가 삶을 변화를 이끄는 매개가 된다.

셋째, 지속적인 영적 습관의 형성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형은 한 번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아래 진행되는 과정이다.⁶³⁾ 매 주일 선포되는 명확한 진리가 청중의 내면에 쌓이고 체화될 때 그것은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DNA로 작용한다. 청중은 이 한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본문이 이끄는 삶의 주체로 거듭난다.

이와 같이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는 설교자와 청중과 성령이 만나

61)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69–70.

62)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65–67.

63) 박현신, “설교의 목적으로서 청중의 변화(μεταμορφούμεθα)를 위한 성경적 원리,” 136–141.

는 변혁의 교차점이다. 설교의 진정한 성패는 강단 위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성령께서 설교 가운데 선포된 그 한 문장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청중의 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혁적 사건을 일으키시는가에 달려 있다. 베뢰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행 17:11) 명확한 한 문장의 진리는 청중이 자신의 세속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합당한 존재로 재구성되게 하는 가교가 된다.

3) 실천적 통합 모델: 말씀이 삶에 울려 퍼지는 ‘ECHO 설교’ 전략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신학적 메커니즘과 연관 기법을 설교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모델로 ‘ECHO 설교’ 전략을 제안한다. ECHO는 Exegesis(주해) – Christocentric Principle(그리스도 중심 원리) – Homiletical Appropriation(설교적 전유) – One-sentence Truth(집으로 가져가는 진리)의 약자이다. 이는 설교가 본문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청중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변혁의 사건임을 상징한다. 마치 메아리(echo)가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우며 지속되듯, ECHO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가 예배 이후에도 청중의 일상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Exegesis는 모든 설교의 출발점이자 본문의 신적 권위를 확보하는 단계다. 주해는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Warren이 지적하듯 설교자는 주석적 과정을 통해 본문의 구조, 명제, 목적을 파악하되, 청중의 정황이나 신학적 선입견을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본문 고유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⁶⁴⁾ 설교자

64)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474–475.

는 본문의 내용, 구조, 무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성령께서 본문 안에 심어두신 의미수반발화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 본문을 머리모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 성경적 전유를 직접 경험할 때 주혜는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 선포의 토대가 된다.

둘째, *Christocentric Principle*은 본문의 특수한 역사적 정황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추출하는 단계다. 앞서 논증했듯이 이 단계를 건너뛰면 설교자는 시대적으로 제한된 원리를 보편 진리인 양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모든 본문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향해 수렴한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화가 확보될 때 설교는 윤리적 교훈주의를 넘어 청중을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이끄는 변혁적 동력을 갖게 된다.⁶⁵⁾

셋째, *Homiletical Appropriation*은 추출된 그리스도 중심 원리가 오늘날 청중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단계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 아래 설교자는 인물 대상화와 상황 대상화를 통해 본문 세계와 청중의 현실을 긴밀히 연결한다. 이를 통해 본문의 진리가 청중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조명된 소통으로 살아 움직이게 한다.

넷째, *One-sentence Truth*는 앞선 세 단계가 하나의 예리한 문장으로 수렴되는 단계다. 이 한 문장은 성령의 의미수반발화의 힘을 청중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된 것으로서 설교자와 청중과 성령이 만나는 변혁의 교차점이 된다.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이 설교자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egesis*에서 파악

65)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고찰과 제안,” 146-147;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48-50.

된 본문의 의도가 Christocentric Principle을 거쳐 Homiletical Appropriation의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ECHO 모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egesis 단계에서는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의 결론부에서 바울이 단순히 자족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자족을 ‘배운 것(ἐμαθον)’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본문의 무드는 역설적 평화이며, 성령의 의도는 청중을 환경을 초월한 자족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Christocentric Principle 단계에서는 보편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추출한다: ‘참된 자족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Homiletical Appropriation 단계에서는 물질적 결핍이나 관계의 상실 앞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현대인의 삶의 자리를 바울의 옥중 상황과 평행화한다. 청중은 자신의 불안이 곧 바울의 상황과 동일한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One-sentence Truth로 다음을 제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배울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성령의 수행적 힘을 담아 청중이 불평과 원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론적 전환을 이끈다(히 12:2).

ECHO 모델의 네 단계는 설교 작성의 순서가 아니다. 본 연구가 규명한 변혁적 기제들—성령의 언어 행위, 성경적 전유,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화, 원리화와 평행화,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신학적 구조다. 설교자가 이 단계들을 성령의 인도 아래 신실하게 밟아갈 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메아리처럼 청중의 삶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변혁의 사건이 된다.

III. 나가는 글

본 연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가 강단 위의 선포를 넘어 청중의 실제적인 일상을 변화시키는 본문이 이끄는 삶(Text-driven Life)으로 나아가는 변혁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와 재활성화의 과제는 결국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통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성경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다. 설교자는 본문의 통치를 가장 먼저 받는 에토스(Ethos)를 갖춘 자로서 인격적 전유를 통해 청중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둘째, 설교의 변혁적 동력은 성령의 언어 행위에 있다. 본문 안에 내재된 의미수반발화의 힘(Illocutionary force)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청중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Perlocutionary effect)로 수행된다. 이 과정은 청중이 단순히 행위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증언하는 존재론적 변형(μεταμορφούμεθα)에 이르게 한다. 셋째, 이 신학적 메커니즘이 청중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교한 원리화와 평행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수행력이 응축된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라는 명확한 한 문장으로 수렴되어 청중의 가슴에 영적 DNA로 심겨져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ECHO 설교 모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실천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ECHO는 Exegesis(주해) - Christocentric Principle(그리스도 중심 원리) - Homiletical Appropriation(설교적 전유) - One-sentence Truth(집으로 가져가는 진리)의 네 단계로 구성된 이 모델은 본문에서 추출된 그리스도 중심 원리가 청중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한 문장의 진리로 수렴되고 그 한 문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청중의 일상에서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조를 담고 있다. 설교의 진정한 승리는 강단 위에서 성취되지 않는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청중의 가슴에 새겨진 그 한 문장의 진리가 그들의 존재를 재구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낼 때 달성된다.

한국교회의 재활성화는 본문의 생명력이 설교자의 에토스를 통과하여 청중의 일상 언어와 습관으로 육화되는 이 변혁적 설교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Warren이 일찍이 간파했듯 성경의 진리를 청중의 삶에 적실하게 연결하는 것은 설교학의 가장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과제였다.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설교가 청중의 삶에 변혁적 사건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신학적 규명 역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했다. 본 연구가 그 과제에 응답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ECHO 모델을 실제 목회 현장과 소그룹 공동체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권 구, “교회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다시 살아나는 교회.” 『복음과 실천신학』 74 (2020): 215–249. <https://doi.org/10.25309/kept.2025.02.20.215>.
- . “An Analysis of Yonggi Cho’s Narrative Sermons Through the Lens of Text–Driven Preaching.” 『영산신학저널』 65 (2023): 151–193. <https://doi.org/10.18804/jyt.2023.09.65.151>.
- 권 호, “본문이 이끄는 시편 설교법: ‘SEIRA’ 시편 설교 작성법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 441–478.
- . “효과적인 연관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신학정론』 제37권 1호 (2019): 437–466.
- .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주요 기법.” 『신학정론』 제37권 2호 (2019): 419–425.
-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52 (2019): 38–70. <https://doi.org/10.25309/kept.2019.8.15.038>.
- 김덕현,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서 설교: 빌레몬서 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36 (2015): 89–117.
- 김재선, “적실성 있는 설교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 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33 (2014): 9–41.
- 류응렬, “청중을 변화시키는 설교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17 (2008): 111–132.
-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 “설교의 목적으로서 청중의 변화(μεταμορφούμεθα)를 위한 성경적 원리: 고후 3:18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7 (2018): 115–146. <https://doi.org/10.25309/kept.2018.5.15.115>.
- . “포스트모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살아있는 강해적 교리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30 (2014): 171–228.
- 오현철, “설교자의 정체성과 성령의 역할.” 『복음과 실천신학』 41 (2016): 142–168.
-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복음과 실천』 (2006

- 뵘호): 19-61.
- 이재형. “본문이 이끄는 설교: 사사기 16:4-22에 기록된 삼손의 부정적 인물 묘사를 통해 구약 내러티브 설교하기.” 『복음과 실천신학』 70 (2024): 42-78. <https://doi.org/10.25309/kept.2024.02.20.042>.
-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와 성경해석학: 신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 침례교 설교로의 적용.” 『복음과 실천』 58 (2016): 379-408.
- .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고찰과 제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력 증진.” 『복음과 실천신학』 71 (2024). 123-150. <https://doi.org/10.25309/kept.2024.05.15.123>.
- . “설교의 생명력 증진을 위한 연구: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76 (2025): 107-138. <https://doi.org/10.25309/kept.2025.08.15.107>.
- 조지훈. “오순절 설교 신학을 위한 제언.” 『영산신학저널』 59 (2022): 137-168. <https://doi.org/10.18804/jyt.2022.03.59.137>.
- 허도화. “성경적 영성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초대교회의 설교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제38권 1호 (2016): 106-138.
- 로빈슨, 해돈 W.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박영호 역. 서울: CLC, 2007.
- Adam, Peter. *Speaking God's Words: A Practical Theology of Preaching*.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 Adams, Jay E. *Truth Applied: Application in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Translated by D. W. Robertson Jr.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8.
- Brooks, Phillips. *Lectures on Preaching*. New York: Dutton and Company, 1878.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New York: Harper & Row, 1979.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Gallaty, Robby, and Steven Smith. *Preaching for the Rest of Us: Essentials for Text-Driven Preaching*. Nashville: B&H Academic, 2018.

- Heisler, Greg.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 McDill, Wayne. *The 12 Essential Skills for Great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Mathews, Ned Lee, David Lewis Allen, and Daniel L. Akin.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B&H Academic, 2010.
- Patterson, Paige, Matthew McKellar, Steven W. Smith, and David Lewis Allen. *A Pastor's Guide to Text-Driven Preaching*. Fort Worth: Seminary Hill Press, 2016.
- Smith, Steven W.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Nashville: B&H Academic, 2015.
- St. John, Russell. "Big Ideas and Bad Ideas."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20, no. 1 (2020): 26–50.
-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Kregel, 2007.
- Vines, Jerry, and Jim Shaddix. *Power in the Pulpit: How to Prepare and Deliver Expository Sermon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5.
- Warren, Timothy S. "A Paradigm for Preaching." *Bibliotheca Sacra* 148 (October–December 1991): 463–486.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formative Mechanisms of
Preaching for a Text-Driven Life: Focusing on the
Speech Acts of the Holy Spirit and the ECHO
Preaching Model

Gu Kwon

The decline of the Korean church today is rooted not merely in demographic shifts, but in the loss of homiletical efficacy—the failure of proclaimed messages to shape the actual lives of congregant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transformational mechanisms by which Text-driven Preaching moves beyond pulpit proclamation to become a Text-driven Life that reshapes the daily existence of listeners.

The study advances three central arguments. First, the authority of preaching is grounded in the divine authority of Scripture, and the preacher must embody an ethos shaped by personal appropriation of the Word. Second, the transformational dynamic of preaching lies in the speech act of the Holy Spirit, whose illocutionary force operates through the biblical text to produce concrete perlocutionary effects in listeners' lives—moving them toward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mu\epsilon\tau\alpha\mu\omicron\rho\phi\omicron\upsilon\mu\epsilon\theta\alpha$) described in 2 Corinthians 3:18. Third, this mechanism requires principalizing and parallelizing the text in relation to the listeners' *Sitz im Leben*, culminating in a single Spirit-charged sentence—the Take-home Truth—inscribed upon the hearts of the congregation.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ECHO preaching model as a practical integrative strategy: Exegesis, Christocentric Principle, Homiletical Appropriation, and One-sentence Truth.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church begins not with programmatic innovation, but with the recovery of transformational preaching in which the life-giving power of the biblical text becomes incarnated in the daily language and habits of the congregation.

Keywords : Text-driven Preaching, Text-driven Life, Transformational Mechanism, Speech Act of the Holy Spirit, Take-home Truth, ECHO Preaching Model